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 서울일보



### 강북, 행정보건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의

## "관내업체·구민 우선으로"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됐는지,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원은 관공서에서 체결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인원 채용 시에도 구민을 위한 고용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해, 건축·토목·전기 등 관내 154개 업체를 발굴한 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계약 시 전 부서에서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관내업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행정보건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심의, 현장 활동 방문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남수 기자
pns@seoulilbo.net

## 전국매일

### 행정보건위 내년도 예산안 적정 편성 여부 심의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해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원은 관공서에서 체결되는 각종 사업 추진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인원 채용시에도 구민을 위한 고용이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해 건축·토목·전기 등 관내 154개 업체를 발굴한 후 내부 행정망에 게시, 계약시 전 부서에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 인터넷 뉴스(한강타임즈)

지방

###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데스크승인 2010.12.03 16:12:15

최진근기자 | news@hg-times.com

[한강타임즈]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행정보건위원회는 2010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원은 관공서에서 체결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인원 채용 시에도 구민을 위한 고용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건축·토목·전기 등 관내 154개 업체를 발굴한 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여 계약 시 전 부서에서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관내업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심의, 현장 활동 방문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바로가기

## 시민일보

### 기획재정국등 내년 예산안 살펴

#### 강북구의회 행정보건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최근 행정보건위원회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3일까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했다. 또한 6일부터 14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심의, 현장 활동 방문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해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한편 행정보건위원회 의원들은 관공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인원 채용 시 구민을 위한 고용이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진용준 기자 jy@siminilbo.co.kr